

합격기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지금도 곧 지나갑니다.



김 미 혜

- 1981년 8월 생
- 숭신여자 고등학교 졸업
- 상신여자대학교 법대 졸업
- 2010년(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I. 시작하면서...

오늘은 ‘마는 트로포’ 연습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마는 트로포는, 프로들만큼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즐겁게 합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연수원내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연습을 끝내고 집에 와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새삼스럽게 ‘아...내가 합격했구나....드디어 합격해서 이런 모임도 갖는구나, 그리고 이런 글도 쓰는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시험을 끝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중간 중간 시험을 그만두었을 때를 빼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5시로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5시로 합격했다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자체만으로도 체력적으로 너무도 힘들었던 채시 때,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버린 3시 때, 최선을 다해 공부했지만 시험 중 어이없는 실수로 떨어졌던 4시 때....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는 시험에서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공을 하면서 견딜 수 있었지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4시에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잠도 오지 않던 그 때에 제 동생이 저에게 “누나..... 지금 많이 힘들지? 근데 그렇게 힘든 지금도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 누나가 나중에 합격하면 지금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은 기억도 안 날걸? 그러니까 조금만 힘

내...."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합격한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합격했는데도 힘들었던 생각이 나지 않는 걸 보니 그 때 동생이 해준 말이 맞나 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시작하면서, 1차 시험이 얼마 안남은 지금, 몸도 마음도 너무도 지쳐있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곧 지나간다고....

## II. 1차 시험

제가 1차 시험에 처음 합격했을 때가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이었던 때였습니다. 그 때는 1차에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뭔가 이룬 것 같기도 하고, 참 뿌듯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은 3차까지 있다는 사실을 잊었었나봅니다.^^ 강조하지만, 사법시험은 1차가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를 대충 공부했는데도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합격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해본 결과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2차까지 바로 합격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수험생활이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1차에 불합격하는 것과 2차에서 불합격하는 것은 충격의 강도도 많이 다릅니다. 어쩌다 빨리 1차에 합격한 것 보다, 조금은 늦더라도 합격할 만큼의 실력이 되었을 때 합격하는 것이 사법연수원에 더 빨리 들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니 1차를 빨리 합격했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조금 늦었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1차만 붙자는

생각으로 각종 요령을 부리며 대충 공부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민법 형법을 1차 때 제대로 공부해 두지 않으면 2차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2차 수험기간 중에 헌법과 민법 형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반면 실제 시험의 난이도는 후4법 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정석대로 공부하는 것의 시작은 기본서 정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기본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교재를 보더라도 합격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1차 수험기간 중 본 교재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 1. 1차 수험기간 중 본 수험교재

- 헌법: 기본서-헌법기본강의(정희철저), 문제집-기출문제집, 진도별 모의고사, 부속법령집
- 민법: 기본서-민법학강의(김형배저), 친족상속법(정일배저), 5개년최신중요심화판례(정일배저) 문제집-기출문제집, 진도별 모의고사,
- 형법: 기본서-형법신강(송헌철저), 판례집-형법판례총정리(신호진저) 문제집-기출문제집, 진도별 모의고사  
 선택과목: 기본서- 국제법요해 (안진우저), 문제집-기출문제집

### 2. 3월부터 8월 말까지

3월부터 여름방학이 되기 전까지는 기본 강의 테잎을 들으면서 기본서에 빠진 부분이나 최신판례 등을 적어놓고, 기출문제를 체크해두었습니다. 이 시기는 끝까지 함께 해야 할 '내 책'을 만드는 시기

입니다. 그리고 '내 책'을 만들면서 기본서를 제대로 정독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때는 기본서를 여러 번 보는 것보다 천천히 정독해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름방학시기에는 기본서를 다시 정독하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년도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 3. 9월부터 12월 말까지

9월부터 진도별 모의고사 시즌이 되었을 때는 기본 강의 테잎을 2배속으로 빨리 돌려 들으면서 진도별 모의고사 예습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복습보다는 예습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를 풀 때 확실치 않는 지문은 그 지문 옆에 0나 X로 표시했고 모르는 지문은 △로 표시를 해서 복습할 때, 문제지에 △로 표시한 지문만 색연필로 표시하고, 그 지문이 틀린 지문이었을 경우에는 옳은 지문으로 고쳐서 그 지문 옆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문도 색연필로 체크 해주거나 기본서에 다시 한번 체크해주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틀렸는지 맞았는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문'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 4. 1월부터 시험 전까지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5-4-3-2-1로 안하면 안 되는지 질문을 하시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저도 계획은 그렇게 짰었지만, 갑자기 한 과목을 5일안에 끝낸다는 것이 너무 버거워

서 항상 7일정도로 계획을 수정했었습니다. 대충 7-5-2-1 정도로 했었고, 항상 시간이 부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 막판에 기본서를 반복하는 의미는 모르는 것이나 헛갈리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함이기 때문에, 설렁설렁 반복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과목에 7일을 할애했던 때에는 기본서를 읽으면서 단순한 암기사항이나 비교해야 할 내용,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는 내용 등을 수첩에 적으면서 공부했습니다. 필기를 하지 않고 책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줄기 일쑤여서 고안해 낸 것이기는 했지만, 그 때 적었던 수첩들은 시험 당일 날 제일 유용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한 과목에 5일을 할애했던 때에는 모르는 것을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기본서를 읽었습니다. 그 다음 반복 할 때 또 모르는 것은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했고, 그 다음 반복할 때 또 모르는 것은 보라색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시험 전 날에는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만 보는 형식으로 조금씩 반복하는 범위를 줄여 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최신판례와 선택과목을 공부했는데, 최신판례를 정리할 시간을 따로 낼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집으로 통학하는 길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테잎을 반복해서 들으며 암기했습니다. 선택과목은 8월쯤에 기본서 정리를 해두고 설날(구정)에 한번 체크하고, 시험 전날 체크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 5. 시험 전 날과 시험 날

시험 전 날은 기본서에 보라색 형광펜으로 체크한 것과, 수첩에 정리해둔 암

기사항, 최신판례를 보았고, 선택과목을 정리했습니다. 공부하다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긴장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대체로 새벽 4시쯤에 잠깐 잠을 자고 6시30분 쯤 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 날은 식사를 많이 하면 소화가 잘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적다고 생각될 정도로만 먹었습니다. 그 대신 초코렛이나 포도 주스를 쉬는 시간마다 조금씩 먹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는 문제를 처음 본 그 순간 판단할 때 어렵겠다 싶은 문제는 별표를 하고 바로 다음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가끔은 어려운 문제를 앞에 배치하고 쉬운 문제를 뒤에 배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앞 문제를 풀다가 시간을 다 소비해 버릴 경우, 읽기만 하면 풀리는 뒷부분에 배치된 쉬운 문제를 못 풀게 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킹실수를 해서 답안지를 바꾼 경우에는 이름이나 수험 번호 등을 먼저 쓰지 말고 우선 답부터 체크하십시오. 시험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린 후 답은 절대 체크할 수 없지만, 이름 등은 시험본부에 가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감독관님도 계십니다.

### III. 2차 시험

#### 1. 어려움...

재시 때는 1,2순환까지 학원 강의를 계속 들었고 시험도 빠진 적 없이 계속 봤습니다. 큰 슬럼프도 없었고 성실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순환이 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책상에 앉아있어도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은 계속 불안하기만 하고 진도는 밀리

고....그러다 보니 슬럼프가 왔습니다. 공부하기가 그렇게 싫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꾸역꾸역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시험 결과를 떠나서 그 시험이 끝났다는 자체만으로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 결과는 한 과목 과락으로 인한 불합격이었습니다. 처음에 불합격 소식을 듣고 멍하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는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마지막기회라고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4시 때, 모의시험 때도 하지 않던, 문제를 잘 못 읽는 실수를 하면서 한 과목에서 소수점차이로 과락을 받게 되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목의 총점은, 열심히 하지 못했던 재시 때 보다 많이 높아졌더라도, 결국은 같은 결과라는 사실이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터널에 혼자 덩그러니 서있는 것 같았습니다.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하는 생각에 잠도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새삼 그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어두운 긴 터널의 끝이 있긴 있었습니 다. ^^

#### 2. 2차 수험기간에 본 교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재를 보시더라도 합격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민소: 민사소송법(이시윤저) 사례 민사소송법(이창환저),

- 형소: 형사소송법(이재상저) 신형 사소송법연습(이재상저), 신이철 단문,
- 행정법: 행정법특강(홍정선저), 행정법연습(김향기저), 행정법사례연습(김연태저), 다이제스트 행정법(성봉근저)
- 상법: 상법신강(김혁봉저), 상법사례 (황의영저)
- 헌법: 사례단문(정희철저), 정희철 강사 암기자료
- 형법: 형법총,각론(이재상저) 신경향 형법사례연습 (이재상저),
- 민법: 민법교안(노재호저) 민법의 맥(윤동환저), 윤동환강사 암기자료

### 3. 1순환과(예비순환포함) 2순환

1순환은 기본서를 '내 책'으로 만드는 시기입니다. 기본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서에 빠져있는 부분을 채우고, 판례를 추가하여 가필하고, 목차가 부각되도록 표시하고, 줄을 치며 기본서를 정리하는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2순환 때 사례를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1순환 때부터 사례를 접하는 것이 기본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2차는 결국 사례해결인데, 1순환 때부터 사례를 접하게 되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사례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4. 3순환

한 과목에 할당되는 날수가 급격히 적어지고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서 체력도 많이 저하되는 시기라서인지 슬럼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시험을 자주 보게 되면서 그 시험 점수가 나쁜 경우 불합격에 대한 두려움에 슬럼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학원 모의고사 점수와 합격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의고사점수가 잘나오면 그 과목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다가 실제시험에서는 과락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과락점수를 받았던과목이 학원에서 최우수 답안으로 종종 뽑히던 과목이었거든요. 그러니, 시험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날 그날 공부한 것을 체크한다는데 의의를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5시 공부를 학교 교시반에서 했고, 모의고사를 풀긴 했지만 채점은 제 스스로 모범답안과 맞추면서 했습니다. 즉, 학원에서 채점 받지 않아도 합격에 전혀 지장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2순환 때까지 이해를 위주로 공부했다면, 3순환 때는 기본개념, 중요판례문구, 학설이름과 내용 논거등 1순환과 2순환 때 정리해 두었던 것들을 암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10년간 기출문제와 교수님들의 채점평을 자주 봐두는 것도 좋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보면서 중요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 5. 최종정리와 시험기간

이즈음에 많이들 고민하는 것이 기본서로 최종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례집으로 최종정리를 할 것인지 입니다. 저의 경우는 민사소송법과 행정법, 헌법

은 사례집으로, 상법은 기본서로, 형사 소송법과 형법, 민법은 기본서와 사례집을 병행했습니다. (물론 속독이 가능하신분들은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2차 시험은 4일간 보기 때문에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둘째날 정도 되면 책상에 앉아있는 것도 힘든 상태가 되기 때문인데요, 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공부를 해야 했기에 신림동 약국에서 파는 여러 종류의 약과 비타민제를 수도 없이 먹었습니다. (약사님께 2차 시험 본다고 말씀드리고, 약 달라고 하면 알아서 주신다고 하네요^^) 시험을 끝내고 와서 책상에 바로 앉으면 너무 힘이 들어서 1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다시 2시정도 까지 공부하다가 졸리면 자고 안 졸리면 그냥 밤을 샌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자야지 자야지 하면 오히려 잠이 더 안 오는 수도 있고, 또 공부하다가 밤을 샌다고 해도 시험기간에는 초인적인 힘이 조금은 나오니까요^^

문제를 풀 때 저의 경우는 1문 개요를 잡고 답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2문의 개요를 잡고 2문의 답안을 작성하고, 3문의 개요를 잡고 3문을 작성했습니다. 1문과 2문 3문의 개요를 한꺼번에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시험시간이 2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작성했습니다. 4시때 문제를 잘 못 읽었던 경험이 있는지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을 하다 보니 1문의 경우 20분정도 개요를 잡았습니다. 이때 10분도 안 지났는데 다른 학생들의 답안 작성 소리가 다다다닥~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쓸모없는 내용은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시간 낭비, 체력 낭비, 지면 낭비 일 뿐입니다.

답안 작성을 하면서 답안의 형식에 대해 많이 신경 쓰면서 연습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분설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형식자체는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문제를 볼 때 너무 세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크게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출제자가 이것을 물어봤을까? 뭘 물어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낸 걸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알고 나서 쓰는 것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막힘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안의 포섭에서도 문제에서 쓰여진 문구를 이용하여 포섭하면 더 구체적으로 포섭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답안작성을 하면서 꾸준히 연습을 해야야 실전에서 습관처럼 나오게 됩니다. 결국 연습밖에는 해결책이 없나 봅니다^^

#### IV. 수험생활을 하면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합격에 대한 불확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서 남몰래 많이 울기도 했고, 또 지난 실수에 대한 후회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수험기간이 짧건 길건,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조금은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즐기는 사람을 이기는 자가 있다고 하죠. 바로.... 그 책을 ‘방금 본 사람’입니다. ^^ 그러면 ‘즐기는 사람’이 ‘방금 본 사람’이까지 하면 아마 천하무적이 될 겁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에서 ‘즐기는 사람’이 되시고 ‘방금 본 사람’이 되어서 연수원에서 곧 뵈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 V. 글을 뱃으면서...

시험공부를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부모님께 2차 합격했다는 전화 한 통을 하는 것과, 이렇게 합격기에 누구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쓰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게 되네요.^^

매일 새벽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부족한 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셨던 아빠, 공부하다 지치고 힘들 때 전화하면 귀여운 유머로 웃음 주시고, 맛있는 요리로 행복하게 해주셨던 엄마, 감당할 수 없이 힘들 때 옆에서 말없이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주던 영미언니 은혜언니 충만이, 함께 기도해 주셨던 한누리 전원교회 김훈 원로목사님, 구지홍 담임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바쁘신데도 2차 답안지 첨삭도 다 해주시고 빠르게 적어간 질문도 하나하나 다 답해 주시면서 공부하다 힘들면 언제

든지 찾아오라고 말씀해 주셨던 김항기 교수님...찾아볼 때 마다 공부 힘들다고 징징댈 때면 웃으면서 다 들어주시고, 힘내라고 용기주셨던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차 강의지원도 해주시고 항상 배려해 주셨던 정연주 교수님, 권오성 교수님, 김봉수 교수님,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업무로 바쁘실 텐데도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너는 합격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항상 위로해주시고 믿어주셨던 선경언니, 연수원생활에 대해 걱정 할 때마다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 려진언니 소녀언니 은성언니 보연이... 수험생이라고 영양 보충시켜주던 사랑스런 친구 은경이 혜진이...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현정언니 윤주언니 연지언니 미진언니 미령언니 나미 희정이 나리 미성이 수연이 경민이 별님이 현지...성신여대 선후배님들 내년엔 꼭 연수원에서 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뚝뚝하지도 않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저에게 지혜주시고, 합격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감사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합격기를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적지는 하나이지만, 그 곳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글도 그 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이 계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엔 저처럼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쁜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지금 많이 힘들더라도 조금만 견디십시오. 지금도 곧 지나갑니다.